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4월 12일 (제78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아름다운 세상

“옛날에 기어 다니는 앓은뱅이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집 굴뚝을 끌어안고 밤을 보내고, 낮에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빌어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터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면서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앓은뱅이는 맹인에게 자기를 업으면 길을 안내하겠다고 하였지요. 맹인이 앓은뱅이를 업고 장터에 나타나면, 서로 돕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던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넉넉한 인심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빌어먹고 살지만 예전보다는 살기가 좋아졌지요.

보는 눈이 똑똑하다고 하더니, 점차 앓은뱅이는 맛있는 음식은 골라먹고 맹인에게는 음식을 조금만 나누어주다 보니 앓은뱅이는 점점 무거워지고, 맹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시골 논길을 가다가 맹인이 힘이 빠져 쓰러지면서 두 사람 모두 도랑에 처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감동적인 글이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참으로 깨달은 바가 많다. 이는 우리의 현주소다.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구하는 세상, 그것이 현대 아닌가. 그러나 그 결과는 공멸이다.

나는 위의 글을 배려라는 말로, 혹은 사랑이라는 말로 풀고 싶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이 사회는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또한 먼저 본 자를 선견자요, 먼저 깨달은 자를 선각자, 선지자라 할진대, 그들이 미처 눈뜨지 못한 자에게 정보를 나눠주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와 지식을 공유한다면 이 사회가 훨씬 발전할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몸처럼 이웃을 생각할 때 세상은 벚꽃과 개나리로 범벅된 봄날처럼 아름다워지리라.

희생한 자의 바람은 단 열매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설명하실 때마다 그 희생이 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해외집회를 위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정말 깊이 감사합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나라의 오늘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일제식민치하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분들,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죽어간 타국의 젊은이들, 독일의 광

육시킨 이유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넉넉하고 풍요롭게 자유를 구가하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희생한 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단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진정한 의미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오직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상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곡해하여 자신의 몸을 확대하며 가난이 정상인 줄, 병든 게 정상인

아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고후8:9).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질곡의 모든 한계를 직접 겪으신 후, 사망권세의 모든 법을 초월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는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고, 그 권세 있는 삶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할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연합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

부로, 간호사로 일하며 조국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던 분들,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낸 분들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순국선열들이 오늘의 세대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일까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아들들을 보내 죽고 심지어는 주검조차 찾지 못한 가족들, 그 나라 사람들이 진정 우리나라에 바라는 점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감개무량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세대들이 끼니를 굶어가며 죽도록 고생하여 자녀들을 교

육 여깁니다. 이거야말로 난센스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길 원합니까? 대물림하기 싫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질병 때문에 로마 병정의 채찍을 견디셨고, 자녀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 죄 없는 그분이 빌라도 법정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사53:5).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녀들이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

못 먹고, 못 입고, 죽어라 고생하여 유학 보낸 자식이 사기꾼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빌어먹고 있다면, 과연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정직한 정도의 삶,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 열매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당신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목사님의 바람 또한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이것이 모든 핍박과 수모를 견디고 이룬 30년의 성취를 뒤로 하고, 또 다시 새로운 30년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필리핀 세부 집회 4월 13일(월) ~ 18일(토)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5:10~26)

인생의 마스터키를 받아라

사람들은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

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다니며 호텔에서 지내다보면 청소하는 분들은 어느 방이든 열쇠 하나로 똑딱 엽니다. 아무리 비싼 방이라도 키 하나로 여는데, 그 키가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왜 방언기도를 이 마스터키에 비유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방언을 했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며, 위로하시고, 증거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장래 일에 대해 알게 되고(요16:13),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요14:12).

방언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외적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끔 방언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개구리 소리 같다는, 개도 하는 방언이라느니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성령을 모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방언은 악한 것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대화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전14:2). 방언은 하나님과의 비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망이다

비밀스럽게 나누는 이야기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보다도 악한 것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언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엿듣고 전파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작정기도를 할 때 바사국 군, 곧 악의 세력들이 기도의 응답을 막았다고 했습니다(단10:13).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나 방언기도는 이 악한 것들도 해독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암호입니다. 마치 군통신병들이 모스 부호로 ‘또또 또도또’ 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 외에는 이것을 해독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방언은 자기 신앙의 덕을 세웁니

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고전14: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신앙의 집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어떻게든 우리 신앙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집이 부실하면 도둑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방언기도를 하여 우리 신앙의 집이 튼튼해지면 악한 것들이 허물지 못하고, 비바람이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넷째, 방언은 마음의 곤고함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

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 이 너희 안식 이

요 이 것 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사28:11~12).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유해산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되는데, 방언기도를 하면 활성산소가 없어져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끓이면 그 안에 있던 유해 성분이 다 끓어올라 넘쳐 나가듯,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하면 내 안의 활성산소가 다 넘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 내 몸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반 바퀴 돌고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귀국하자마자 단에 설 수 있는 것도, 많고 복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도 거뜰한 비결이 바로 방언기도에 있습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내 몸의 피로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늘 체험합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많은 스트레스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명상이나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해독주스나 해독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의 상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방언은 깊고 오랜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6:18).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말로 기도하면 지구를 다 돌고,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1시

간이면 족합니다. 또 행여 기도처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옆

에 서 우리 말로 크게 기도하면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 것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 아니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방언기도를 하는 말씀입니다. 방언기도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좇아 하는 것이므로 오랜 시간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섯째,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우리는 당장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니 마땅히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방언기도가 인생의 마스터

키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언기도는 바다에서는 어뢰탐지기요, 하늘에서는 레이더관측기요, 땅에서는 지질탐사기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제 목회 30년은 방언기도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방언으로 기도하라

요즘 문화적인 교회가 대세입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좋은데 방언기도는 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방언도 그치고”라는 말씀을 붙들며 방언무용론을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전14:39).

대통령과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급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를 손에 쥐고도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방언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14:14~15).

방언에 대해 처음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며(고전12:10),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하나님이 정하신 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열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예운 갈 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렘 21:8~9).

참으로 회한한 말씀이다. 적에게 항복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대적하거나 피난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토굴에 던져버렸다.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나? 이유는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살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죽었다고 그 후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이 예레미야 얘가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그것이 진리요, 정의다.

예수만이 구원자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셨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따르면 천국이요 따르지 않으면 지옥일 뿐이다. 구약시대에 미가야 선지자와 싸웠던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모르고 자기들 생각을 말해 거짓선지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때도 갈릴리 유다와 드라가 그랬다(행5:36~37).

교회 역사 속에도 계속되어 왔고, 우리나라의 과거와 오늘도 여전히 거짓선지자들로 늘 시끄럽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

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하고, 자신이 재림예수, 혹은 성령님, 보혜사... 등등 삼위의 하나님 중 하나로 자칭하며 수많은 선한 성도들을 유혹하여 종파를 이루고, 세력을 만들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사람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매국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 즉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다. 천상천하에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예수의 구원이 부족해서 인간들의 도움이 나 중재가 필요하지도 않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충분하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이 자기로 통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해도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여물어가는 알곡도 참새에게 쪼이는 순간 쪽정이가 되고 만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9).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 예수 한분으로 발견되자.

이시대 목사

딱정벌레를 조심합시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 박사의 ‘숲속거인의 승리와 패배’라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미국 중부 콜로라도 주 롱 피커에 400년이 넘는 거목의 잔해가 있습니다. 박물학자들은 이 나무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할 때부터 자란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400년을 넘는 긴 세월 동안에 벼락을 열네 번이나 맞았고, 수없는 폭풍과 눈사태, 가뭄 등 수없는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날, 딱정벌레 떼가 몰려와 이 나무껍질을 파고 들어가 수분을 빨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벼락도 견디고, 폭풍우와 눈사태도 이겨내고 목이 타는 가뭄도 견디어낸 이 거목이 점차 말라죽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나쁜 습관, 작은 거짓말, 작은 근심, 작은 것이라고 방심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맙

니다.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은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큼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최악의 우주비행 참사로 기억되는 쉘턴 저호 사고는 실질적으로 작은 고무패킹 때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이 고무패킹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발사되기 전에 기술자들은 이 고무패킹의 문제점을 언급했고, 교체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상부에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사를 감행하여 그런 참사에 이른 것입니다.

감기를 우습게 알면 합병증에 걸리고, 담뱃불이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압시다.

예수중심편집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7)

::간중::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봉사



어느 여름집회, 나는 봉사부장으로 몇 명의 생도들과 새로 개척한 지교회에 봉사지원에 나갔다가 늦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다. 사력을 다해 일을 한 탓인지 몸살이 나서 당직 사무실 옆 침상에 누워버렸다. 하루를 앓아누웠다가 일어나도 도저히 몸은 천근만근.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 평상시 같으면 집회 전에 봉사부장이 조 편성내지 봉사구역을 정하는데, 내가 늙은 바람에 다른 임원진에서 작성한 것이 오류가 생긴 것이다. 배후에는 악의 영들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첫 주부터 생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 사망 봉사구역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가방 싸서 집에 간다는 생도들, 아파서 일 안한다, 배정을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는 등 각양각색의 원망 불평 소리가 내 귀를 때려 도저히 이대로 누워있다가는 집회 3주가 산으로 갈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날 밤 죽기를 각오하고 복대를 찬 후 산에

올라가 밤이슬을 맞으면서 부르짖었다. 어느덧 어둠이 떠나고 아침햇살이 동녘에서 밝아올 때 한빛이 내 앞을 비추더니 환상이 열렸다.

이게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나는 새하얀 번기통이 아닌가? 번기통속을 보니 온갖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오물들이 있었고, 그 더러운 것들을 감싸고 있는 번기통이 그렇게도 위대해 보이고 사랑스러운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감당하시고 감싸 안은 채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 아닌가! ‘아~ 이거구나’ 깨달았다. 그 순간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왔고, 믿음이 생기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허리에 차고 있던 복대를 풀러 던져버렸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통증은 사라지고 치료함을 받았다. 이후 호텔, 주방, 쓰레기 청소장 등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수고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었다.

첫 주 집회를 마친 후 성도님들을 돌려보내고 생도들을 중앙공원 편의점 앞으로 불러 모았다. 영문도 모르는 생도들에게 한 명씩 화장실 번기통속에 각자의 불일을 보

는 대신에 물은 내리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불일들을 보고 나니 맑았던 물이 침, 소변, 똥 등등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이 되었다. 나는 삼삼오오 들어와서 구경하라고 말하고 맨손에 팔을 건여붙이고는 직접 똥물을 손으로 휘휘 저었다. 모든 생도들이 잠잠해졌다. “우리들은 예수중심교회의 간부후보생들이다.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양떼들을 돌보면서 이끌어가겠나? 봉사가 힘들다고 생도들이 불평불만해서 되겠나? 번기가 오물을 다 안 듯 모든 허물을 주님은 감싸 안으셨다. 예수님을 본 받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 남은 집회 잘해보자.”고 격려했다.

굳은 땅에 비가 오면 옥토가 된다고 했던가!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어느 누구하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떤 해의 집회보다도 더 멋지고 훌륭한 집회를 마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 하는 것은 자신을, 그리고 내 주위를 오물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오물통을 닦아내는 자가 아닐까요?

문산예수중심교회 권종성 목사



귀를 기울이세요

몇 달 전부터 몇몇 교육전도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지교회 신축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현장에 도착하니 위층으로 옮겨야 할 건축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류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석고보드, 모래, 시멘트, 타일... ‘이건 오늘 중으로는 다 못 나르겠다. 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진 다음에 오는 누군가가 나르겠지’ 하는 믿음 없고(?) 압박한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개씩 자재들을 위층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그 많았던 자재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함께 자재를 나르던 전도사님이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 마음을 비우고 조금씩 나르다 보니 그렇게 많은 걸 거의 다 했잖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날 목표했던 자재들을 다 옮기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봉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남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도 꾸준히 하다보면 결국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8).”

신혁주 전도사
blessedmc@naver.com

거모예수중심교회를 다녀와서



거모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2015.4.1)

지난 4월 1일 안산에 위치한 거모예수중심교회가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1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총회장 목사님은 작은 성전에 뺨박히 자리한 성도들을 보시고 ‘아마 초대교회가 이랬을 것’이라며 기뻐하셨다. 목사님은 율기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율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잘 암기하고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전제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적 은혜, 조건적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분이 까다롭고 인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레 독이 될까봐 조건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

리라. 이 말씀은 분명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라는 5절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기적의 삶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14:21)는 말씀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청결하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마5:8). 제가 늘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큰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면 어둡지요. 그렇다고 하늘의 태양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태양은 하늘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만 시꺼먼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컴컴한 것입니다. 그러니 태양 빛을 받으려면 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정직해야 합니다. 제 목회 30년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나에게는 정직하고 남에게는 진실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은 만국공통의 화폐입니다. 심은 대로 나는 것 아닙니까? 정직을 심으면 정직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시112:2~4). 넷째는 열조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전들의 말을 들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자고로 귀가 커야 명장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기적의 씨앗을 심어야 기적이 납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부디 이 전제조건을 실천하여 거모교회가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을 받기를 바라고, 오늘 참석한 모든 자들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모예수중심교회 담임 진경자 전도사의 기도와 열심이 이 말씀대로 창대하게 펼쳐지리라 믿는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Good News

사생아로 태어난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에 비해 몸도 왜소했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친구의 부모들도 자기 아이들이 벤 후퍼와 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오셨습니다. 그 날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을 본 소년은 호기심이 생겨 어느 날 예배시간에 먼발치

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같이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다가와 그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지?” 하시더니 “그래, 누구 아들이지 알겠나. 네 아버지를 꼭 빼 닮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말에 그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이어 갔습니다. “너는 하

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소년은 얼굴이 빨개져서 뛰쳐나오는데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해!” 그는 자라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JCC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JCC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2015. 4. 5, 인천교회)

부활주일 저녁, 인천예수중심교회 대성전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는 JCC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준 선물이었다. 46인조로 이뤄진 JCC 오케스트라는 이날 우리 귀에 익은 곡들로 객석과 하나가 되었다. JCC 오케스트라는 단장 겸 지휘자인 신일철 집사의 눈물어린 노력의 결과다. 사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육영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 고아 100명을 모아 악기를 사주고 가르쳐 악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항상 이런 오케스트라를 꿈꾸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이 오케스트라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음악은 본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이고, 성경은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악기쯤은 다룰 줄 아는 정서도 필요합니다. 음악이 있는 가정과 사회,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음악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음악 속에서 악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삶, 질적 향상을 위해 질주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인천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12시 30부터 신일철 집사 지도로 각종 악기(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통기타, 트럼펫 등)를 배울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문의전화 010-4214-5357]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이초석 목사
춘계산상집회
4. 20(월)~23(목)

호텔예약(인터넷)
4월 14일(화) 10시
www.jcc.tv